

백화점, 올 상반기 호황 누렸다

경기회복·소비심리 되살아나… 광주신세계·롯데·현대 매출 급증

연초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백화점들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30억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4.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액은 510억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145억으로 24.3% 늘었다.

또 지난 6월 2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여름정기세일 실적도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다.

롯데百 전국점포 돌며
5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만원 상품권 증정

“전국 점포를 다 돌면 상품권 500만원 드려요.” 여름 정기세일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비수기를 맞은 백화점들이 손님들을 끌어모으려 색다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달 22일까지 영플라자와 아웃렛을 비롯한 전국 34개점을 모두 방문해 점포당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10명에게 상품권 500만원을 증정하는 ‘2010 롯데백화점 서머 투어’를 진행 중이다.

각 점포에서 5만원 넘게 구매할 때마다 이를 인증하는 서머 투어 스티커와 생필품을 주며 네 번째 구매부터는 횟수에 따라 도넛 교환권이나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준다. 실제로 지난 9일 행사가 시작된 이후 1주일 만인 16일 본점에서 출발해 광주점, 대전점, 아웃렛 수완점, 부산점 등을 지나 울산점을 마지막으로 34개 점포 ‘투어’를 마친 고객 두 명이 나왔다.

/연합뉴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명품 매출이 지난해 대비 24.9% 오른데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아웃도어 매출도 25.2%나 증가했다.

핸드백 23.5%, 남성캐주얼 22.3%, 화장품 13.0% 등 대부분 상품군이 두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았다.

롯데백화점도 전점 기준으로 올 상반기 총매출이 5조200억, 영업이익이 4700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 상반기 보다 각각 14%, 11% 늘었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하반기에는 특별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올해 매출

총출을 10조600억원, 경상이익 1조원 목표 달성을 무난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이번 ‘여름 프리미엄 세일’기간 매출이 지난해 여름 정기세일 매출보다 8%나 높면서 올 상반기 백화점 매출이 약 7%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매출이 47%나 급증했으며 무더운 날씨로 패션잡화 매출이 약 15% 증가했다. 특히 해외명품, 화장품 등 평소 세일을 하지 않았던 상품

군 매출이 약 44%나 늘어 매출 호조

를 보였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11개 점포의 여름세일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7% 증가했으며 명품 18.9%, 영파선 의류 13.3%, 남성의류 12.9%, 스포츠 12.1%, 여성의류 11.3% 등 지난해 매출이 부진했던 의류부문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생필품 위주의 대형마트와 달리, 의류나 고가 명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의 매출은 소비심리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맞물려 소비심리가 살아나 백화점 매출이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기자 emlee@ 연합뉴스



“신세계에 가면 담양 특산물 싸게 사요”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이사(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최형식 담양군수(세번째)가 1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열린 ‘청정지역 담양, 담양 향토 농·수 특산물전’에서 상품을 흥보하고 있다. 행사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담양 주요 특산물을 20% 가량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경영난’ 저축은행 구조조정 확대

금융당국,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 협약 체결

경영난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확대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부실 가능성성이 감지된 저축은행들과 경영개선 협약(MOU) 체결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는 저축은행과는 별개의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심사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PF 채권의 규모와 부실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MOU 대상으로 선정된 저축은행들의 상당 부분이 지난달 캠코에 PF 부실채권을 매각한 61개 저축은행의 명단과 겹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MOU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PF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를 보였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11개 점포의 여름세일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7% 증가했으며 명품 18.9%, 영파선 의류 13.3%, 남성의류 12.9%, 스포츠 12.1%, 여성의류 11.3% 등 지난해 매출이 부진했던 의류부문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유동업계 관계자는 “생필품 위주의 대형마트와 달리, 의류나 고가 명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의 매출은 소비심리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맞물려 소비심리가 살아나 백화점 매출이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기자 emlee@ 연합뉴스



복날엔 복분자주 드세요

보해 ‘복·복 마케팅’

“복날에는 복분자주 드세요.”

보해양조는 ‘삼복’ 기간 동안 업소 및 대형 할인점과 연계해 복날에는 복분자주를 마시자는 내용의 ‘복(伏)-복(覆)’ 마케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보해는 19일 초복부터 전국 600여개 보양식 업소에서 보해 복분자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

게 복분자주 미니어처(80ml) 7

만병을 무료로 증정한다. 대형 할

인점에서도 이같은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해 관계자는 “매년 복날이면 소비자들이 몸을 보강하면서 몸에 좋은 복분자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보양식이 복분자주를 결합하여 치친 기운을 복돌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통계의 힘!

기아차 ‘K5’ 등서 마케팅 활용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급성장

통계 속에 숨은 사회변화와 소비자의 마음을 읽으면 대박 상품이 나오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0 상반기 히트상품 속 통계 열전’ 보고서에서 우리 삶에 만든 ‘참살이탁주’, 중형세단 ‘K5’ 등이 통계를 헐저히 분석하고 마케팅 노력을 강화한 결과 대박 상품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아차동차의 중형세단 ‘K5’ 풀체은 구매력이 높아진 30대의 수요와 유통망을 찾아낸 통계가 큰 힘을 발휘했다.

‘참살이탁주’는 소비 트렌드를 읽어내 상품에 응용한 케이스.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0%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 87.0%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주목한 것이다.

친환경 유기농 햅쌀로 만든 막걸리인 ‘참살이탁주’는 지난해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상승장 공격적 매수보다

조정시 분할매수 바람직

▶

주간 증시 포커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크게 늘어난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이들이 단기 매수수익 규모에 비해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부진한 느낌이다.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에도 원화환율이 일어붙이기는 모습은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지난 주에도 외국인 대량 매수의 한판에서는 투신 등 기관권의 매출총액이 집중되면서 유동성이 반감됐고, 하반기 실적을 겨냥하는 펀더멘탈 변수의 확대재생산을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지난 6월초 이후로 유로화가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유로화환율이 유로당 1.3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비 달러화 통화들의 강세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의 엔화는 6월초의 달러당 92엔에서 현재 87엔까지 5.7% 절상되어 원화의 강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타 통화들의 움직임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그리고 달

려화의 대규모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은 6월초의 1,200원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9일의 1,196원에 비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 원화강세가 쉽사리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유동성이 대량으로 둔화될 소지도 있으며, 차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지난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한동안 1,700선 중심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격적 매수 대응보다는 조정시 분할매수 중심의 접근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전복장터

전복장터

062-576-8600

무인텔 테마 쇼룸

NATEM

한대백화점 일 LG전자 토털 TEL. 062-523-7789

무인텔 테마 쇼룸

NATEM

한대백화점 일 LG전자 토털 TEL. 062-523-7789